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총회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제3차 총회복음심포지움 개최

"한국의 신학 교육과 교회"를 주제로

3월 25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 연구원은 오는 3월 25일 제3차 총회복음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매년 시기적절한 이슈들을 가지고 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혼탁한 사회와 교회에 강한 도전을 주어왔던 우리 교회는 급변에도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신학 교육과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움을 열게 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신학교의 난립과 그로 인한 목사 후보생들의 자질 문제로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번 심포지움은 한국 신학 교육의 현

주소와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21세기 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을 예를 향한 바른 신학 교육의 방향을 정립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심포지움의 개최예배는 25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 일 정

제 1 부 개회예배	설교 : "한국의 신학 교육 이대로 좋은가" - 이종성 박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 -
제 2 부 심포지움	제1강 "신학 교육 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발제: 전호진 박사 (고신대학장) 응답: 허 긴 박사 (침례신대학장)
	제2강 "신학교 커리큘럼과 목회 현장" 발제: 이종윤 박사 (총회교회 위임목사) 응답: 조종남 박사 (서울신대학장)
	제3강 "신학교 난립과 목사(후보생)의 자질 문제" 발제: 박영희 박사 (총신대학장) 응답: 맹용길 박사 (장로회신대학장)

제5회 교구찬양대회 4월 13일 개최

지정곡은 찬송가 245, 478, 519장

지난 1월 정기당회 때 제5회 교구찬양대회의 개최 일정이 4월 13일로 확정된 데 이어, 2월 정기 당회에서는 지정곡과 자유곡이 확정되었다.

지정곡은 모두 세 곡으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245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478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519

장) 등이다. 참가자들이 이 세 곡 중 택일하여 한 절만 부르면 된다. 자유곡은 찬송가나 복음송 중에서 선택하여 한 절만 부르면 된다.

이번에도 합창과 중창 부문으로 나뉘어 대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중창팀은 자유곡 한 절만 부르면 된다.

자폐 아동 위탁할 가정 모집

우리 교회 부설 기관인 총회장 애아동조기교육원(원감 이동귀 집사)은 자폐아동을 1년간 위탁할 총회 성도의 가정을 찾고 있다. 위탁할 자폐아동은 남아로서, 특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제주도에

서 상견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이 아동을 위탁할 성도는 장애아동조기교육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는 562-0548.

성례식 시행 지침 개정

학습, 세례 받으려면 매월 둘째 주일까지 신청해야

지난 24일 소집된 2월 정기당회에서 학습, 세례, 입교, 개종에 관한 성례식 절차 규정이 다소 변경되어 그 시행지침에 확정되었다.

이 시행지침에 따르면 이제부터 학습이나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습·세례식이 거행되는 성례주간(통상 매월 셋째 주간) 한 주일 전(매월 둘째 주일)까

지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할 때에 해당 교구 교역자의 확인과 지도를 받아 사무국 행정과에 성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성례 절차에 관한 안내서를 통하여 전 절차를 잘 알고 준비해야 하며, 특히 문답준비교재를 받아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문답과 성례에 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주 성례주

간에는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문답예비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화요일 저녁 7시에 거행되는 문답식에 반드시 참석하여 문답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수요일 I부나 II부 예배 때 거행되는 성례식을 통하여 성례식 전과정이 마쳐지게 된다.

신청 접수	문답예비교육	문답	성례식
기간: 성례 1주 전 매월 둘째 주일까지 접수: 교구 확인 받아 사무국 행정과로	개인준비: 문답준비교재에 의하여 준비 일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저녁 7시 장소: 베다니홀	일시: 매월 셋째 주간 화요일 저녁 7시 장소: 베다니홀	일시: 매월 셋째 주간 수요일 I부와 II부예배시 장소: 본당



민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H 선생님,

구세군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 부스 부인은 8인의 자녀를 모두 아버지의 사업을 잘 돕는 자녀로 키웠습니다. 그 비결은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서 깨달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악마보다 앞서게 하여 주의 사업을 잘 돕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급변 겨울 수양회에서도 많은 교사님들이 수고하시는 중 H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수양회 기간 3일 동안 가계문을 닫고 부부가 함께 어린 아들을 옆에 끼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종들었다니 목사이기 전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든 칭찬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황금만능시대를 벗어날 수 없는 현대인들이 황금을 캐겠다고 주일도 도적하는 이때에, 3일씩이나 생업을 포기하고 주의 사업에 헌신하는 사실을 듣고 홀려버릴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숨은 봉사를 주님은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행할 의지와 힘마저 가지셨으니, 회생과 행함이 함께 하는 선생님의 가르침은 열매를 맺어, 젊은이들이 아름답고 싱싱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 전수에만 급급하고 정신과 인격을 키워 주지 못하는 현대 교육의 결함을 교회학교 교육이 보충해야 할 뿐 아니라,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바른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 시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사야말로 좋은 교재에 못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과 같은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밝고 고운 눈망울들이 상처를 입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선생님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3.

이 중 윤 목사

70인 전도대 교육 3월 14일부터 개강 예배는 9일 오후 6시에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 부여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을 고취시키고 전도 방법론을 전하기 위한 70인 전도대가 3월 70인 전도대 준비위원회는 이월 9일(토) 오후 6시 베다니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써, 16번 교육 과정을 통해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주간의 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훈련되어 알찬 복음의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70인 전도대 교육은 3월 14일

일	자	강의	강사
3	14	경건의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송태근 목사
	28	성령 안에서 사는 삶	
4	4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이상규 간사
	11	전도의 방법 I	
	18	전도의 방법 II	
	25	전도의 방법 III	
5	2	전도의 방법 IV	송태근 목사
	9	삶의 우선 순위	
	16	기도하는 방법	
	23	당신의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30	제자 훈련 I	김은태 목사
6	13	제자 훈련 II	
	20	개인 성경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송태근 목사
	27	성도의 삶과 찬양의 능력	
7	4	교회란 무엇인가	송태근 목사
	11	간증의 방법과 그 효과	



성경 강해

이 중 윤 목사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요12: 9~11)

범죄심리학자들이 범법자들을 조사 연구한 결과, 살인 강도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 다시 들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남겼거나 목격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 무서워하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바로 목격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그는 새 생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런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왔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엡 2: 1). 나사로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 그분을 받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

알게 되면,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나사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신앙의 각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가 와도 주님을 쉽게 떠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했던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잡아가도 두렵지가 않았습니 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몰려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2. 위협적인 인물

나사로는 불신자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첫째, 지도층에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단순히 ‘종교 지도자’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특권층이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정을 원했던 것

하여 부활이 입증되자,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깨질까봐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자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당시의 잘못된 가치관에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에 도전적인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학습을 유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들 까닭에 이 사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에 도전을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진리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축복의 인물

나사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 의하면,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의해 변화된 우리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본문을 읽어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나사로를 보게 되면 연상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염려가 있으므로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사로 때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지도층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 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갖가지 방법을 모두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펄박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진리는 매장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진리를 쫓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사로가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매력적인 인물

나사로는 인기가 있는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잘 생겼거나 몸매가 멋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으로 인해서 썩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우리들은 영혼이 죽었던 자들인데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에게 매력이 있었다면, 그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 생명이 주어졌다면, 나사로와 같이 우리들도 매력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아직도 매력이 넘치는 인기 있는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5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함께 가 주고, 걸을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 주라’(마 5: 41~42) 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나사로와 같이 매력적인 인물이 되어 큰 어부되신 예수님의 낚시 미끼가 되어야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부드럽게 변화된 우리들의 사랑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사로와 같이 매력적인 인물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초빙하여 잔치를 열었을 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7절을 보면, 당시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부패한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입니 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 혁명가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폭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가운데 구약 시대의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

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하는 위대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말입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나사로는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받은 복을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래 지도자를 위한 대학생 복음화 대회

대학인의 가슴에 새로운 소망 심고 폐막

미래 지도자를 위한 대학생 복음화 대회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난 2월 23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학 신입생, 재학생,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우리 교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던 이 복음화 대회에 연인원 5천명이 참석하여 진리의 말씀과 명사들의 강의,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대학 생활을 새로운 각오로 준비하였다.

이번 집회는 대학 복음화의 기틀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현교



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 좋은 기회가 되었다.

> 특강 I <

미래 세계를 위한
크리스찬 지도자

감사 이 종 윤 위임목사

대학생선교회와 충현교회가 공동 주최하는 '미래 지도자를 위한 바른 대학 생활 안내'는 단순한 교회 행사나 어느 선교회 차원에서의 행사보다는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고자 하는 차원에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지도자론'에 대하여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너무나도 모르는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자기를 분명히 알고,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도자로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인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도자가 되려면 추진력, 창의력, 사교성, 안정감, 자기 개발력, 겸손, 결단력, 큰 비전 등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성경 안에는 많은 지도자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지도자는 기쁨으로 지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사람, 겸손과 믿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하고, 사랑만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정직과 겸손의 몸가짐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의 수단을 개발하고, 타인에게 명령하기를 좋아하고 개인적 이익을 따져 일을 하고, 늘 자신을 합리화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우선하시며, 지리에 매우 의존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발하는 이 선상에서 정말로 사랑을 하되 수고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을 사랑을 향하여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 여러분 개인이 성공하시고, 민족이 여러분을 통하여 살고,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와 3·1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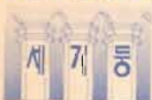
올해는 3·1 운동이 일어난 지 72년째가 되는 해이다.

일본으로부터 36년간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민족은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항일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수많은 항일 독립 운동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역시 3·1 운동이다.

3·1 운동은 시간적으로는 1910년대에 일어났던 여러 민족 운동들을 총결산하는 대규모 민족 운동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공간적으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민족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일어났던 거족적인 민족 운동으로 한(韓) 민족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표방한 거사였다.

당시 한국의 기독교는 전래된 지 채 40년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25만에 불과한 교세를 가진 미세한 종교였다. 그러나 3·1 운동에 가담하였던 한국의 기독교

교의 활약상은 백만의 교세를 내세우면서 최대의 민족 종교임을 표방하였던 당시의 천도교나 전통적 종교임을 자부하던 유교와 불교를 압도하기에 충분하였다. 그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나라의 자주권을 빼앗기고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였고, 독립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받는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 시켰던 사건을, 당시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서 서러움을 당하던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민족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모범적인 교회



오 태 회 장로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높은 곳에서 수 많은 십자가들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두운 밤 하늘에 수없이 반짝이는 붉은 십자가를 바라 보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물론 교회의 양적인 팽창에 대해서 감사도 드렸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정말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도 가졌을 것이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슬프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 뿐이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부정과 부패는 날로 극심하여 국회의원들이 뇌물 사건으로 투옥되는가 하면, 최고 지성의 전당인 대학의 교수들이 일시 부정으로 잡혀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나라의 장래가 너무나 암담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소금이 25퍼센트이면 썩음을 충분히 방지할 텐데 전체 인구의 25퍼센트가 기독교 신자인 이 나라에 왜 이런 냄새나는 일들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금년도 우리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38년 된 장년기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모범적인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전국 목회자세미나를 개최케 하시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재무장시키셨고, 홍해작전을 실세케 하시어 전국 교회에 말씀과 기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셨으며, 김치(KIMCHI) 세미나를 통하여 동구권을 비롯한 외국에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훈련 시키게 하셨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형언할 수 없는 크신 은혜에 감사,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사들을 개최하였다고 해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행사들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바로 모범적인 성도들로서의 자세이다.

보도 매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사고 소식과 이번

설날 명절 연휴에도 170명이 교통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도 나와 관련이 없으면 그저 그러려니 하는 무관심의 생활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고, 사고 팔기도 하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더불어 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손길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며, 수고를 허리에 동이시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충현의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모범적인 교회는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계획하는 거창한 행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열정적인 믿음 생활과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 가운데 참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서 모범적인 교회가 기록된다고 하겠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자.

다음호 세기동은 우기전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초등5부(부장 최무길 장로, 지도 김경성 전도사)의 주일 오전 9시 50여 명 교사의 기도 소리로 시작된다. 김경성 전도사의 인도로 교사기도회가 끝나고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은 오전 9시. 초등5부의 예배 시간은 다른 교회 학교의 예배보다 경건하고 정숙하다.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친 후 2부 순서에는 광고와 새친구 환영, 분반공부 시간이다. 믿음, 소망, 사랑, 진리 네 개의 과에

위해 총동원 전도주일을 정하여 믿지 않는 친구들을 인도하고, 9월 이후 후반기에는 '잃은 양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결석이 잦은 친구들을 편지, 심방, 전화를 통해 권면할 계획이다. 또한 전도상을 시상하여 전도를 장려하고 전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한다.

특히 초등5부의 교사들은 주일 오후 학생들이 귀가한 후 분반공부와 찬양, 율동 등 주일에

을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일이 허다한데,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온 식구가 한 교회에 출석해 기독교 가정의 모범을 보여 주길 바란다며 교인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전했다.

초등5부는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곳이므로 그 어린이들이 더욱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경건하게 예배

■ 교육의 현장 - 초등5부

예배와 전도 강조하는 교육부서



열 개의 반이 있고 신입반이 있다. 3백여 명의 학생들이 출석하는데 출석률도 다른 교회학교 부서보다 높은 편이다.

“주 안에서 승리 생활”이라는 주제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겨울 성경학교를 했다. 체육대회와 그림그리기, 글짓기의 시간도 있었으며 특별히 학생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섬김의 자세를 배우는 시간도 있었다. 올해에도 초등5부의 부흥을

학생들과 함께 할 모든 프로그램들을 직접 학생들의 입장이 되어 실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사들은 학생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초등5부 어린이들이 날이 갈수록 예배의 경건함과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볼 때 교사들은 보람을 느낀다.

교사들은 학부모님들이 집과 교회의 거리가 멀다고 어린이들

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뿐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일예배 참석을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 전도도 열심히 한다.

김경성 전도사님의 지도로 천국 일꾼을 양육하는 초등5부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더 넘치기를 기도한다.

모범다락방

교회 근처 다락방답게 배가 운동에 전력

- 제1교구 역삼10다락방 -

김성자 집사님이 다락방장으로 수고하시는 제1교구 역삼10다락방은 어느 다락방 못지 않은 사랑으로 구역원들이 협력을 하고 있었다. 교회에서 가까운 관계로, 교회에 유달리 많은 정을 갖고 있는 이 다락방은 12세대로 구성되어 있지만, 2세대는 여건상 참석하지 못하고 있고 그외 10세대는 늘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기자가 다락방 모임에 참석한 날은 1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락방장님의 인도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생활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친 후, 다락방 식구들은 다과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다락방장님은 작년, 타 구역으로 파견되었을 때 너무 어려움이 많아 울기도 많이 했는데, 이번 다락방은 다락방 식구들 모두가 무척 열심인데다가 너무나 순종을 잘해서 요즘은 너무 감사해 눈물을 흘린다고 하셨다.

또한 다락방 식구들은 다락방 장님이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모든 다락방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

맙고 감사하다고 입을 모으셨다.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묻는 질문에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특성을 살려서 열심히 배가운동을 해야겠다고 하였고, 아직 믿지 않는 다락방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락방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하셨다.

평소에 외부 사람들이 충현교회는 너무 커서 성도들간에 사랑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다락방 모임을 생각해 볼 때, 잘 모르는 소리들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다락방 모임과 같은 작은 모임들을 교회가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새로 등록한 이들이나 아직은 교회가 서먹서먹한 이들에게 쉽게 친근감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 다락방은 너무 평범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겸손해 하시면서 사랑이 넘치는 다락방의 모습을 유감없이 과시하신 이 다락방 식구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저 큰 사랑만을 부르짖기에 앞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 식구들부터 사랑하고 그들의 걱정과 고민을 나누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현 다락방

제10과 새 땅, 새 질서

본문 : 신 5 : 22~33

찬송 : 379, 493

본문연구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에 걸친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서 살아 갈 교훈을 새롭게 강조하셨습니다.

1.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22~26)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수 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2. 약속을 잊지 말라(27~28)

시내산에서 그들은 은혜에 감격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떡으로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신 8:3).

3. 다만 순종하라(30~33)

그리고 순종할 때는 축복을, 분순종할 때는 저주를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순종을 통하여 온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 결론(29)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사는 것을 모든 민족들이 보고 그들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는 항상 과거를 기억하고 언약을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온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야겠습니다.

문답

1. 신명기는 왜 기록되었습니까?
2. 29절에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3. 어떻게 할 때에 축복을 받는다고 하십니까(32, 33)?

토의

1.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나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결심한 것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2.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기도

1. 과거에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합니다.
2. 목회자세미나, 충현제자훈련, 충현복음심포지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세계의 평화와 연약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